

조 사 자 료

2003 - 012

2002년, 세계 메이저 시멘트 그룹의 업적현황
- LAFARGE -

2003. 10

한 국 양 회 공 업 협 회

2002년, 세계 메이저 시멘트 기업의 업적현황

I. LAFARGE

1. 개 요

○ LAFARGE 2002 현황

- 시멘트 출하	105.7백만톤(20.7% ↑)
- 시멘트 생산능력	139.7백만톤(3.1% ↑)
- 레미콘	35.4백만m ³ (9.2% ↑)
- 골재	208.8백만톤(0.9% ↓)
- 종업원수	82,892명(6.4% ↓)

○ Lafarge의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

- 시멘트 : 49.4%(5.6% p↑)
- 골재 및 콘크리트 : 35.1%(3.6% p↓)
- 지붕 : 10.1%(1.5% p↓)
- 석고 : 7.6%(0.2% p↓)
- 특수 및 기타 : 1.4%(0.3% p↓)

2002, LAFARGE 실적

(단위 : 백만유로)

	매출액	매출총이익	증가율(%)	생산능력(백만톤)
유 럽	6,666		11.2	53.7
북아메리카	4,405		-0.6	21.1
라틴아메리카&카리브해	720		-5.3	9.9
아시아-태평양	1,388		26.1	34.7
동북아프리카	562		-11.8	9.1
타지역아프리카	<u>869</u>		13.6	<u>11.1</u>
전 체	14,610	3,101	+8.4	139.7
감가상각비		-969	+4.4	
영업이익		2,132	+8.4	
순이자		-521	-4.2	
경상이익		1,611	+15.9	
예외조항		-309		
세전이익		1,302	-19.9	
법인세		-448	+21.7	
주식분할상환금		-158	+11.3	
순이익		456	-39.2	

○ Blue Circle 인수(2001. 6)효과로 매출액 및 판매량 증가

- 2002년 매출액은 6.6% 증가한 14,610백만 유로
 - 시멘트 부문 매출액은 16.1% 증가한 7,520백만 유로 기록
- 시멘트와 크렁카 판매, 29.6% 증가한 87.6백만톤
 - Lafarge는 유럽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시멘트 선도기업
- 레미콘 출하, 9.2% 증가한 35.4백만m³ 기록
- 반면, 골재 출하는 0.9% 감소한 206.9백만톤

○ 2002년 매출총이익, 자본투자

- 매출총이익은 8.4% 늘어난 3,101백만 유로였고, 세전경상이익은 15.9% 증가하여 1,611백만 유로 기록
- 2002년, 기존 사업의 자본투자는 전년도 투자액인 1,455백만 유로의 1/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
- 인수 및 합병 투자에 429백만 유로
- 반면에 자산 처분으로 투자재원 725백만 유로 확보

○ 자기자본부채비율 및 순부채 수준

- 2002년 말 순부채 : 10,216백만 유로
- 무형자산을 제외한 자기자본 부채비율은 220.3%
- 무형자산 포함 자기자본 부채비율 수준은 110.2%

2. 지역별 동향

□ 유 럽

- 유럽전체 그룹 매출 6,666백만 유로로 전년에 비해 11.9% 증가
 - Blue Circle 및 동유럽에서 합병된 기업들로부터의 매출증대로 인해 시멘트 부분의 매출은 32% 증가한 2,675백만 유로 기록
 - 유럽에서의 시멘트 출하 또한 40.9백만톤으로 27% 증가
 - 또한 동유럽에서의 매출은 유럽 전체의 15%의 비중을 담당
 - 시멘트 부문 영업이익은 742백만유로를 기록, 28.2% 증가
 - 영국 및 그리스에서의 구 Blue Circle 관련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111백만유로
 - 동유럽에서의 영업이익은 38.7% 증가한 86백만유로를 기록, 유럽 전체 영업이익의 11.6%를 차지
- 주요 시장별 2002년 시멘트 판매 실적 및 동향
 - 프랑스 7.4백만톤, 영국 7.1백만톤, 스페인 6.8백만톤, 그리스 5.5백만톤
 - 세르비아 및 슬로베니아에서 새로운 운영체를 인수
 - 반면 몰도바에서는 합병에 실패하였으며 영국의 시멘트 공장 하나는 폐쇄됨

- 프랑스, 스페인, 이탈리아, 루마니아, 러시아, 우크라이나, 폴란드에서 이익 증대

- 부정적인 국면

- 비록 물량은 늘었으나 독일에서의 수급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크체크 공화국에서의 출하 또한 독일로의 수출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

○ 골재 및 콘크리트 부문

- 서유럽에서의 매출은 4.9% 증가한 1,856백만유로 달성

- 서유럽에서의 영업이익 또한 148백만유로로 2.8% 증가

- 레미콘 출하 및 매출

- 총 560여개에 달하는 일단의 레미콘 공장에서 14.8백만m³를 출하, 1.4% 증가

- 그리스와 독일에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5.5% 증가한 1,067백만유로 기록

- 프랑스와 영국에서의 출하감소로 인해 골재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5.7% 감소한 71.6백만톤으로 나타남

○ 지붕 및 석고 부문

- 서유럽 매출은 전년대비 7.9% 감소한 1,162백만유로 기록

- 독일에서의 매출이 448백만유로로 9.5% 하락한 것에 기인
- 동유럽에서는 128백만유로의 매출 달성
 - 폴란드에서의 부진을 크체크 공화국과 헝가리에서 상쇄
- 서유럽에서의 석고 부문 매출은 한계에서 2백만유로 더 초과한 604백만유로에 불과하였으나 영업이익은 34% 증가한 59백만유로 달성

□ 북아메리카

- 지분 관련 제휴사업을 제외한 북아메리카의 모든 Lafarge 업체들은 북아메리카 Lafarge사의 지배 하에 있음
 - 상기 회사에 대한 Lafarge 지분은 53.5%
 - 2002년의 매출은 전년보다 2.1% 감소한 미화 3,252백만달러 기록
 - 시멘트 부문은 매출액의 37.5%, 영업이익의 63.3% 차지
- Lafarge 그룹 차원에서의 북아메리카 지역 실적
 - 매출액은 4,405백만유로로 전년대비 6.8% 하락
 - 시멘트 부문 매출은 전년보다 7.5% 증가한 1,579백만유로 기록
 - 인수된 Blue Circle 운영체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부문 이익은 전년보다 5.7% 감소한 330백만유로

- 시멘트 출하는 구 Blue Circle 운영체에서의 4.9백만톤 출하 포함 17.5백만톤으로 전년대비 9.4% 감소
 - 캐나다 동부, 플로리다주와 미국 서부시장의 총 20개의 일관 공장 및 4개의 분쇄시설에서 출하 감소
 - 캐나다에서의 출하 감소율은 약 40%에 달함
- 북아메리카 지역의 레미콘 출하는 10.7백만m³, 골재부문은 117.9백만톤 기록
 - 북아메리카 Lafarge사는 캐나다 157개 공장, 미국 137개 레미콘 공장 보유

□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

○ 매출은 전년대비 5.3% 감소한 720백만유로 기록

- 시멘트 부문
 - 매출액, 8.2% 하락한 502백만 유로
 - 반면 시멘트 출하는 1.6% 증가한 6.5백만톤 기록
 - 11개 일관공장과 3개 분쇄공장에서의 매매이익은 1.5% 감소한 202백만유로 기록
 - 환율변동의 부정적인 충격으로 시멘트 가격이 회복된 칠레에서의 구 Blue Circle 운영체에서의 22백만유로에 달하는 영업이익 증가분으로도 상쇄할 수 없었음
 - 베네주엘라에서의 출하는 17% 감소, 가격은 9% 하락
 - 브라질과 멕시코에서의 출하는 증가하였으나 은두라스에서는 감소함

□ 아시아 - 태평양

- 말레이시아, 필리핀 등지의 구 Blue Circle 운영체에서의 조력으로 매출은 전년대비 26.1% 증가한 1,388백만유로 달성
 - 시멘트 부문은 981백만 유로를 달성, 30.3% 증가
 - 출하량은 46.5% 증가한 21.1백만톤(전년 14.4백만톤)기록
→ 총 17개 일관공장 및 5개 분쇄공장으로 구성
 - 영업이익 또한 100백만유로로 전년대비 56.3% 상승
 - 말레이시아(5%↓)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출하량 증가
 - 한국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에서의 가격은 상승하였으나 필리핀과 인도에서 가격 하락
 - 특히 필리핀에서는 톤당 25유로 하락, 감소세가 두드러짐
 - 중국에서는 신공장 건설과 베이징 시장에서의 강력한 수요로 인해 판매 급성장
 - 39.9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라파즈한라시멘트는 7.2백만톤의 국내출하 실적을 올렸으며 말라얀 시멘트가 5.5백만톤을 기록, 뒤를 이었음

□ 근동 아시아 및 북 아프리카

○ 매출액은 전년대비 11.8% 하락한 562백만유로 기록

- 시멘트 부문

- 12개의 일관공장과 5개의 분쇄시설로 구성된 동 지역 총생산 능력은 16.6백만톤
- 매출액은 455백만유로로 전년대비 17.3% 하락
- 시멘트 영업이익은 10.4% 감소한 112백만 유로 기록

- 이집트에서 가격은 8% 하락하였으나 Titan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적절한 시장 확대

- 또한 터키, 모로코 및 요르단에서 수요 향상

□ 아프리카 기타 및 인도양

○ 역내 그룹 매출액은 13.6% 증가한 869백만 유로를 기록

- 시멘트 부문

- 14개의 일관공장과 4개의 분쇄시설로 구성됨
- 매출액은 16.3% 증가한 756백만 유로 달성
- 출하량은 41.7% 늘어난 10.2백만톤 달성
- 영업이익은 120백만 유로로 전년대비 8.1% 증가

- 남아프리카, 카메룬, 케냐 그리고 우간다 등지에서 이익 증가

□ 전 망

- 2003년, 2004년에 걸쳐 2001년에 이루어졌던 Blue Circle과 합병에 따른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
 - Blue Circle과의 합병으로 더욱 성장하여 목표 수익을 달성한 것인지의 여부가 최근의 논쟁으로 대두됨
 - 유럽 일부와 북아메리카의 거친 날씨 조건하에서 2003년 초반 다소 판매부진을 보였으나 2003년 전체를 보면 동유럽과 아프리카에서의 성장에 뒤이어 물량 증대가 기대됨
 - 2003년 중반, 북아프리카 및 근동의 수입시장 또한 성장하는 시장으로 자리매김
 - 독일, 이집트 그리고 필리핀에서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이들 국가에서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한 상쇄 전략이 예상됨

자료출처 : International Cement Review 8월호(2003)